

보도일시 (인터넷, 지면) 2023. 6. 27.(화) 16:00 배포 2023. 6. 27.(화) 10:00

우리 해운의 든든한 안전판,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 출범

- 최대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국적선사의 구조조정 및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동 지원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와 한국해양진흥공사(사장 김양수, 이하 '해진공')는 6월 27일(화) 오후 2시 서울 쉐닝톤 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'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(이하 '위기대응 펀드')'의 출범을 알리고, 선·화주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감염병의 세계적 유행(팬데믹) 기간 중 이례적인 수준으로 상승했던 해운운임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,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교역규모 정체, 선박공급 증가 등으로 당분간 운임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 아울러, 올해부터 강화되는 국제해운 탈탄소 규제와 해운기업의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*에 대한 요구도 국적선사에 경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*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며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

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본격적인 저시황기 진입과 친환경 규제 강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고, 국적 중소·중견선사의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역량 강화도 지원한다.

특히 이번 펀드가 조성되면, 국적선사에 부여된 세제 혜택(톤세제 적용)*과 HMM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**가 중소·중견 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다시 투입되는 해운산업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국적선사의 톤세제 활용 → 법인세 절감 → 절감액 일부를 해진공에 출자 → 위기대응 펀드 투입

** HMM 경영정상화 → 해진공의 배당금 수입 발생 → 위기대응 펀드 투입

위기대응 펀드는 ▲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펀드와 ▲국적선사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 지원 펀드로 구성된다. 펀드는 최초 5천억 원 규모(각 2,500억 원)로

출범하며, 향후 민간 투자자 유치와 국적선사의 투자 수요에 따라 최대 1조 원 규모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.

▲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펀드는 국적선사에 부실 징후나 경영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전·사후 구조조정 또는 국적선사 간 인수합병(M&A)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. 과거 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사후적 구조조정에 국한되어 위기 시 국적선사의 선대·터미널 등 핵심 자산의 헐값 매각이 불가피했으나, 이 펀드를 통해 앞으로는 경영위기 발생 전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져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

▲국적선사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 지원 펀드는 국적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박 확보 지원*, 국적선사가 발행하는 녹색채권** 인수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. 특히 이 펀드는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대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하여, 국제 해운 탈탄소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.

* 국적 중소선사가 친환경 선박(인증등급 3등급 이상, 친환경 설비장착 등) 확보 시 담보인정비율(LTV) 최대 90% 적용, 금리 인하 등 금융조건 우대하여 지원 / 수요 부족 시 중견선사까지 확대

** 자금 활용 용도를 환경친화적 프로젝트 투자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채권

아울러, 이날 펀드 출범을 계기로 선·화주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되었다. 업무협약에는 주요 화주기업인 포스코플로우·현대글로벌비스와 한국해운협회가 각 업계를 대표하여 참여하였으며, 이 펀드의 주요 투자기관인 해진공이 동참하였다. 이들 기관은 ‘국적선사의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 역량 강화를 통한 화주기업의 친환경 공급망 구축’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‘국적선사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 지원 펀드’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공동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가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해운산업의 든든한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.”라며, “국적선사와 투자기관, 화주기업의 많은 관심과 투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성원 (044-200-57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슬 (044-200-5720)
담당 부서	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본부	책임자	팀 장	전기환 (051-795-1631)
		담당자	과 장	배종윤 (051-795-1632)